

# 한국 작가가 만든 '아트 벤치'...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놓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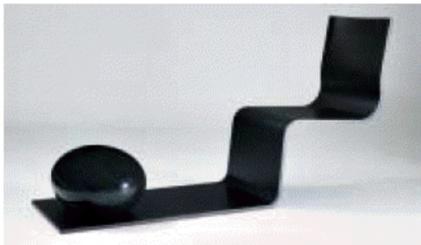
## 최병훈 작가의 작품 10점 중앙 광장에 영구 설치 돼

세계적 건축가 佛 장 누벨이 설계 '사막의 장미'라 불리는 카타르 국립박물관이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장미 모양을 가진 사막의 모래 덩어리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했다. 대형 원형판 316개가 장미 꽃잎처럼 뒤섞이고 맞물리며 빛이 난 뻐어난 외관 덕분에 많은 이가 '여행 버킷리스트'로 꼽는다.



오프닝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최병훈의 '아트 벤치'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셰이카 알 마야사 공주, 최병훈 작가,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 해외 미술관에 소장된 최병훈 작가 작품



독일 바일 암 라인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명상을 위한 의자.



프랑스 파리 장식 미술관. 벤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미술관. 조각품 '선비의 길'.

설계안을 보더니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중앙 광장이 좋겠다고 했다"며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소장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

작품은 거친 현무암으로 만든 벤치와 테이블 등 10점이다. 알 마야사 공주는 "세월의 흔적을 머금은 동양적 느낌의 작품, 특히 돌의 질감이 건물 외관과 멋스럽게 어울린다"며 극찬했다. 공주가 주도해 최병훈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도 곧 제작에 돌입한다. 알 마야사 공주는 세계 미술시장을 들었다 놔다 하는 오일머니 '큰손'. 연 미술품 구매액이 10억달러를 넘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한 컬렉터인 데다 한국 작가와 작품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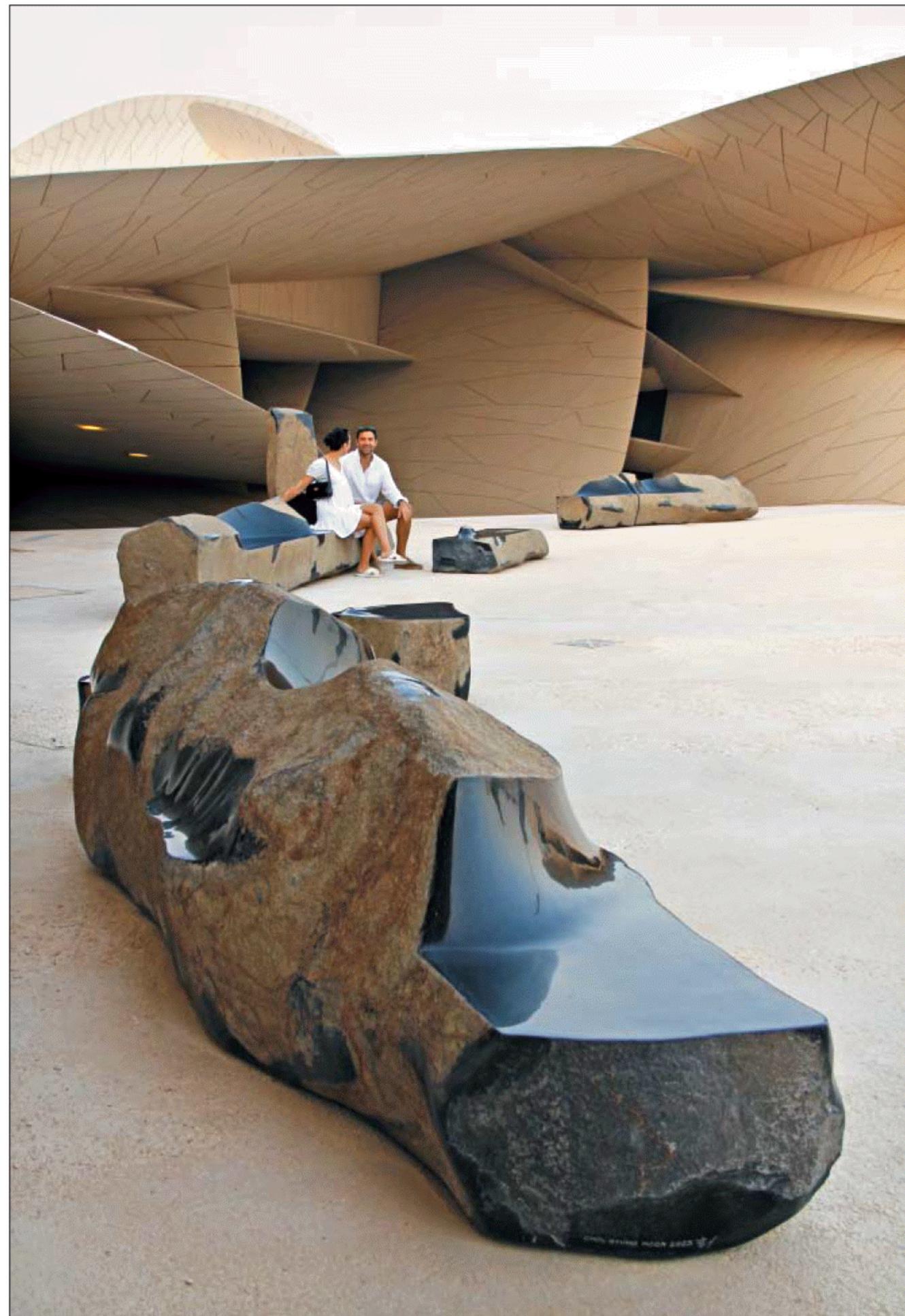
최병훈은 "전북 고창에 가면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아무렇지도 않게 똑똑 놓여 있는데, 그곳을 답사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제가 원래 폐사지(廢寺址)나 유적지를 좋아합니다. 건물은 허물어졌는데 드넓은 절터에 돌이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돌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역겹의 세월을 간직한 원시의 돌덩이가 그의 손을 거쳐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 그래서 제목도 '태초의 잔상'이다. "5t짜리 현무암을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구해서 갈았다"고 했다. "몇 년 전 우연히 이 현무암을 발견하고 한 덩어리 사다가 파주 작업실에 갖다 놓았어요. 겉은 황토색인데 속살이 까만 돌. 오랫동안 묵히면서 들여다만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지요"

일부만 갈고 일부는 그대로 뒀다. 원석 그대로인 황토색 거친 부분과 매끈한 검은 부분이 대조를 이루면서 묘한 울림을 준다. 그는 "거친 것과 부드러움, 과거와 현재, 무거움과 가벼움이 만난 상태"라며 "누가 이 작품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 물어보면 저는 수억년이라고 답해요. 돌덩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세월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일부만 손을 댄 거니까요."

오프닝 행사에는 알 마야사 공주를 비롯해 모하마드 알 루마이히 카타르박물관청 CEO, 압둘아지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립박물관장, 이준호 주카타르 대사 등 한국·카타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허윤희 기자



최병훈 작가 제공

카타르 국립박물관 중앙 광장에 최병훈의 '아트 벤치'가 똑똑 놓여 있다. 5t짜리 현무암을 일부는 갈고 일부는 그대로 둔 작품이 건물 외관과 어울린다.